



고장난 우산 고쳐 보시는

이원복

새 우산 되어 짝~ 퍼질때 세상은 '맑음' 입니다



이원복 거사는 우산을 고쳐서 '사람'과 '삶'을 새롭게 배운다. 그의 보시행은, 번뇌에 찢기어 비가 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포근한 우산이다.

전 주 인후동 아중리 현대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이원복 거사(66). 그는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인근에서 '우산 아저씨'로 통한다. 고장나 버려진 우산을 고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산이 너무 흔해졌어요. 조금만 손 보면 딸퉁한데도 쉽게 버려곤 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다급해 하면서도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면 사람 마음이 그만큼 간사해요."

6년 전, 20년 가까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 후 이곳 아파트 경비일을 하게 되었다. 단지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무심코 버려진 우산을 주워들었고, 간단히 손을 보니 새것과 같았다.

이렇게 수선하기 시작한 '버려진 우산'은 시

내 수선한 우산 100개를 전주 우체국에 전달했다. 되돌아보니 그동안 보시한 우산이 3000여 개에 이른다.

의외로 버려진 우산은 주변에 많은 편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장은 물론 집에서 아파트까지 오고가는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고장난 우산이 하루에 2~30여개.

요즘은 이 거사의 '우산보시' 소문을 들은 청소년들이 버려진 우산을 모아서 주워 수선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모여진 우산은 먼저 완전해체된다. 우산살, 천, 손잡이, 꼭지 등으로 분해되어 재활용할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린다. 단순해 보이는 우산이지만 수선하는 데는 제법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더구나 우산 종류가 워낙 많아 맞는 부속품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거사가 반가워하는 이들이 있다. 가끔 우산 수선을 부탁하는 이들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주에 우산을 수선하는 곳이 몇 곳 있었다. 요즘은 그나마 모두 없어져서 우산 수선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제는 이 거사가 전주에서 유일하게 우산수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료수선이다.

더 불어 급하게 우산을 쓰고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는 이들도 반갑다. 그들은 사소한 물건이라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가 오면 고마워하며 무료우산대를 이용하면서도 다음 사람을 위해 가져다 두지 않는 풍토가 아쉽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본래 꼭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이들이 쓰도록 한 것이니 이 거사의 일은 거기까지일 뿐이

아파트 단지내 '버려진 우산' 수선
6년간 경로당 등에 3천여개 보시
빌려간 우산 돌아 오지 않을때 아쉬워
"내가 마음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



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초소에 쌓이게 되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뛰어가는 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예 경비 초소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위에 30여개를 걸어두고 누구나 쓰도록 했다.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바깥세상하고 단절돼 있었어요. 아침에 비가 와도 1층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비 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바깥 출근시간에 우산 가지러 다시 올라가는 것만큼 낭패인 경우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나 이곳 초소로 뛰어와요."

바람이 맞았다. 삭막한 시멘트 공간에서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더구나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 거사의 '우산보시' 소문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 밖까지 퍼졌다. 관내에 있는 10여개 경로당은 물론 우아동사무소, 구청 민원실, 전주시청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수선한 우산을 보냈다. 지난날에도 겨우

연장은 물론 부족한 부품을 구입하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 1평 남짓한 좁은 초소 안의 보물은 연장과 함께 주요부분 부속을 모아놓은 4개의 작은 상자이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망가지고 고장 나는 부분은 우산살이다. 꺾이기 쉬운 살대가 하나라도 상치하면 버려지기 일쑤다. 우산을 수선하는데 이력이 난 이 거사에게 물체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산천을 다시 입히고 천에 맞는 실을 꿰어 일일이 꿰매는 일이 더 섬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바늘에 찔리고 비늘이 매끄럽지 않아 불뿔이 없어진다.

"우산을 수선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살다보면 힘든 일도 있는데 우산만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잊어져요. 그럴 때는 단순히 우산이 아니더라도 '어찌다 이렇게 다쳤나' '그래도 너 버렸다고 주인 미워하지 말아라' '고놈 참 손 보기가 고약스럽게도 생겼네' 그러다가 새겨진 우산을 활짝 펼치면 '고맙습니다' 해요. 정말 그래요. 제 마음이 활짝 퍼진다니까요."

다. '고맙다'는 인사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언제나 '욕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짚은 물라도 부쳐넣도 결국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욕심이 없어야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나오는 겁니다."

이 거사의 재적사찰은 원주 정수사이다.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따라 나서던 절에 이제는 부인 조종선 보살(66)과 함께 다닌다.

시골의 작은 절에서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대중법회가 자주 있어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불자된 도리로 알고 있다. 정수사 부처님을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부처님이 '마음먹기 나름이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하지는 않아도 내가 마음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 몸이 허락하는 한 '우산 보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전주=이준업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49년 마하물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 계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물품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용보상품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사찰용 연등전선 (범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여름 '살'을 알리자
가득 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기념품
부처님 오신 날 기념품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 X 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물 **Mahamall.co.kr 02-732-1520**



공단등
· 대-23, 중-18, 소-15cm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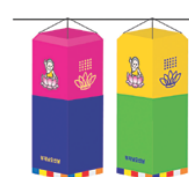
캐릭비너터만들등
· 32cm X 32cm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색상별



황금연등
· 20인치, 13인치, 10.5인치, 8인치, 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연꽃등
· 진분홍, 연분홍, 주황, 연두, 보라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속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업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종 등
· 40cm X 27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종경등
· 빨강, 분홍, 노랑, 초록, 파랑



만월등
· 32cm X 32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오색 등



비단팔모접등
· 28cm X 24cm
· 분홍, 노랑, 초록, 빨강, 파랑



팔각조립등
· 26cm X 28cm
· 핑크, 오렌지, 초록, 파랑, 분홍, 빨강, 동쪽, 노랑, 성도일, 빨강, 성도일, 노랑